

“사람냄새’ 나는 얘기로 경찰 편견 깨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경찰’ 떠난 강진 출신 이대우 형사과장

30년 간 1천여명 검거한 ‘범죄 사냥꾼’ 인터넷 카페 운영·방송 출연 소통 노력

‘범죄자 사냥꾼’ 이대우(54·경정)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계에서 ‘전설’로 꼽힌다. 30년 동안 범죄자 1000여명을 검거한 실적뿐이 아니다. 인터넷 카페 ‘범죄사냥꾼’을 운영하고, ‘도시경찰’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는 ‘스타 경찰’이다. 강진 출신으로 광주에서 공고를 나와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이력의 소유자다.

그가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이유는 “경찰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피해자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모토에 녹아 있다.

“아무리 열심히 범인을 잡더라도 결국 욕을 먹게 되는 경찰 조직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잡새’, ‘비리경찰’ 등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 ‘범죄 사냥꾼’을 개설해 사건 제보를 받거나 범죄 관련 상담을 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또 다양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유튜브 ‘범죄 사냥꾼’ 채널을 열고 사람들과 소통하

기도 했다.

“사람들이 경찰의 삶을 잘 몰라서 편견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형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범인을 추적해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힘들었던 과정을 잊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업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최근 이 과장이 출간한 책 ‘다시 태어나도 경찰’도 이와 관련돼 있다.

이 과장이 30년 형사생활 중 겪었던 사연들부터 경찰 생활 노하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경찰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는지 경험을 빌려 ‘사람 냄새 나게’ 풀어냈다.

이 과장은 “그동안 맡아 왔던 사건 자료 80~90%를 소각해 줬다. 이 자료를 경찰이 되고 싶은 준비생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 경찰에 대해 궁금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경찰이 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도 방향의 시점이 있었다.

강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돈을 벌고 싶어 광주공고(옛 광주기계공고)를 다녔다. 서울로 올라가 여러 회사에 입사해 봤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3개월을 버티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관이었던 작은아버지 의견을 따라 3년 동안 의경으로 군복무를 한 뒤 1989년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곡절도 있었다. 4년차가 되던 무렵, ‘범죄와의 전쟁’에서 검거 실적 1등을 차지했을 때였다. 폭력조직원과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시민을 때렸다’는 보도가 나고 말았다. 이 일로 해임당한 뒤 소정심사를 진행, 3개월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다.

“그 때가 가장 힘들었지요. 새벽마다 당시 유행했던 ‘부추빠기법’을 잡느라 집에 얼굴 한 번 못 비쳤던 때라 충격이 더욱 컸어요. 그 때 아이가 ‘아빠 왜 회사 안 나가’ 하자 서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웃음) 그 경험이 제게 어떤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배경을 줬습니다.”

이 과장은 “돌아보면 경찰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를 대표해 사회에 봉사하고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는 1거 4득의 직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정년을 맞는 그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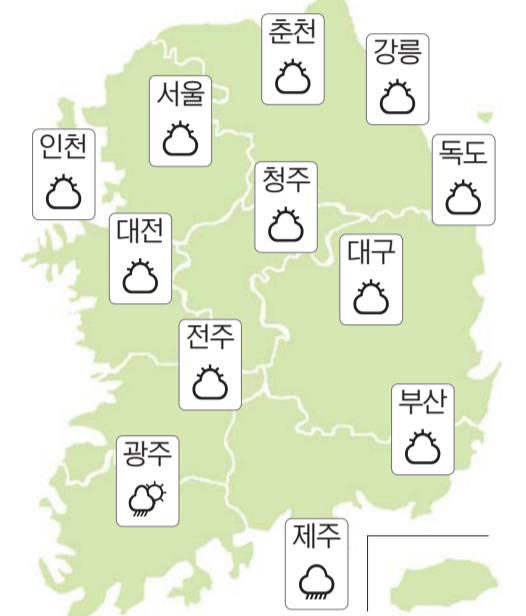
해돋이	05:29	달뜨기	01:08
해질	19:47	달짐	14:44

우산 챙기세요

고기압 영향으로 오전 한 때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온뒤	19/24	보성	비온뒤	19/22
목포	비온뒤	20/23	순천	비온뒤	20/23
여수	비온뒤	20/21	영광	구름많음	19/24
나주	비온뒤	19/24	진도	구름많음	20/24
완도	비온뒤	20/23	전주	구름많음	19/26
구례	비온뒤	19/24	군산	구름많음	19/26
강진	비온뒤	20/23	남원	구름많음	19/25
해남	비온뒤	19/23	흑산도	구름많음	19/24
장성	비온뒤	19/2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
	만바다(북)	1.0~1.5	0.5~1.0
	만바다(남)	1.0~1.5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
	만바다(서)	1.0~2.0	1.0~2.0
	만바다(동)	1.0~1.5	0.5~1.0

◇ 물때

목표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36	09:00
	15:04	22:07
여수	10:45	04:11
	23:23	17:25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매우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16(목)	☀	17(금)	☁	18(토)	☁
19/29	☀	21/30	☁	20/29	☁
19(일)	☁	20(월)	☁	21(화)	☁
23/28	☁	24/29	☁	23/29	☁

아이메디슨(주) 조선대에 손소독제 5천개 기증



‘조선대학교 안과광학의리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단’ 참여업체 ‘아이메디슨(대표 이동필)’이 지난 13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휴대용 손소독제 5000개를 기증했다. 사업단은 국내 안과광학의리기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180억 원의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호남대 한국어교육원, 유학생 ‘여름학기 수업’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원장 윤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철저한 방역과 지침 준수는 물론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철저한 강의로 여름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학기 수업은 지난달 시작해 오는 8월 25일까지 10주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한다. (호남대 제공)

심폐소생술로 아버지 살린 여중생

조대여중 박채이 양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1학년 박채이(13)양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박양은 지난 6일 오전 7시 45분께 산수동 자택에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당시 자기 방에 있었던 박양은 신음을 TV 소리로 작각했으나, 재차 들리자 뛰어나와 거실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이 끝난타임(5분) 내에 이뤄져 아버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아버지는 구조대를 통해 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박양 아버지는 50세로, 지병은 없으나 급격한 스트레스로 부정맥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그는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고 한다.

72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그는 현재 의식을 되찾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양이 갈비뼈가 일부 부러질 정도로 압박한 덕분에 소생할 수 있었다.

박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받아 온 안전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이 기억나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양 어머니 김진숙씨는 “남편과 고대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이 덕분에 남편이 살아날 수 있었다. 아이가 ‘복덩이’다”고 말했다.

답임 한채운 교사는 “채이는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학급 회장을 맡고 있다”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제자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효성,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2천만원 전달

효성은 최근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전달된 장학금은 마포구내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마포구 희망나눔 장학금은 마포구내 성직우수자와 취약계층, 특기장학생 등을 선발해 지급하고 있다.

효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마포구 희망나눔 장학금에 총 1억2000만원을 후원했으며, 1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박홍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효성이 지역나눔을 위해 6년째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있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효성의 후원금을 소외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게 가까이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해남윤씨 족사동중회(회장 윤옥윤) 주관 ‘족사동 추원당’ 표지석 준공식=26일(토) 오전 10시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산33-6 010-4623-8080.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

- 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

- 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신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청동 대광로제비마을 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를레저지도사(자격면)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

- 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부음
- ▲홍기정씨 별세, 홍석원·돈석(조오섭 국회의원 비서관)·무하·윤금·영란·연춘·복남씨 부친상, 양수현·김현희씨 시부상, 정현채·오희철·박해균·이창훈씨 장인상=발인 15일(수) 오전 8시 광주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101호 062-606-4000.
- ▲강연순(전 강소아과원장)씨 별세, 홍원호(미래아동병원장)·필승·화정·수정·윤정·은영(고려대방사선과 교수)씨 부친상, 정경용(변호사)·강을석(재미 의사)·주경린·유동식(안과병원장)씨 병부상, 김미령(호남대 교수)·문승란씨 시부상=발인 15일(수) 오전8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